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4년 6월 15일 | 총권 32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13 2층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울림’ 있는 고전 읽기를 위하여

- 강독을 겸한 도서관 강의 프로그램을 늘리자

희망을 찾기 힘든 현실이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의 활성화가 그나마 이 나라에 빛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의 구실 중, 책읽기에 관한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살펴보려 한다.

책읽기 방식은 다독과 정독, 고전과 현대물, 재미와 감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인상에 기대서 말한다면,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다독·현대물·재미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나 싶다. 아직 책읽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이기에, 그 점 이해된다. 하지만 글쓴이의 선입관을 말해도 된다면, 아무래도 책읽기의 꽃은 고전·정독·감동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해도 고전·정독·감동이 빠진 것은 반쪽 책읽기이다. 물론 도서관에 고전에 관한 강연이 꽤 많다. 하지만 그것은 고전 맛보기이지 고전 읽기는 아니다. 어떤 고전에 관한 강연을 듣고 그 책을 실제로 읽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듯해서이다. 고전을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깊은 울림’인데, 혼자 읽으면서 거기에 이르는 쉽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고전 읽기는 정독을 거쳐 ‘깊은 울림’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이것을 밀고나갈 수 있는 곳은 학교보다는, 도서관이다. 고전 읽기가 학점이나 점수와 연관되면 ‘울림’이 아니라 지켜움만 남기 때문이다. 물론 도서관에서 지금껏 해왔던 쪽으로도 꾸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전 읽기를 통해 우리 문화에 깊이와 격조를 만드는 것에도 도서관이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중들과 고전 읽기를 해온 글쓴이의 경험을 참고거리로 내놓으려 한다. 글쓴이는 개포 시립도서관에서 주역 강독 겸 강의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6개월 했다. 한문 원문을 읽고, 풀이하고 강의하는 방식의 수업이다. 40여 명이 꾸준히 왔고,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된다. 주역이 점을 치는 책이라는 것 때문에 호응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수업에서 점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역 속에 나타난 동양 ‘사상’과 ‘역사’를 주로 다루기에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역 64괘 전부를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다. 도서관에서 주역 8회 강연 요청이 왔는데, 64괘 중 1/3만 하더라도, 주제 강연이 아닌, 강독 겸 강의를 하기로

바꿨다. 두 경험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5회 동안 매번 <사기>, <안티고네> 등 새로운 고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고전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든 것이 그 하나이고, 집에서 대학생·어른들과 각각 몇 달째 하고 있었던 <맹자>, <마가복음> 강독 겸 강의를 또 다른 것이다.

주역 8회가 끝나갈 때쯤 많은 분들이 64괘 전체를 읽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도서관 담당자와 상의하여 4회는 재능기부로 하고, 나머지 11회는 도서관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64괘 전체를 하기로 했다. 이때, 강남 도서관에서 삼국유사 6회 강의 의뢰가 들어 왔다. 그 정도 시간이면 <삼국유사> 기이(紀異) 편 중 1/2 정도는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의할 수 있겠다 싶었다. 4회까지 마쳤고, 20여 명이 꾸준히 나왔다. 2시간 중 1시간 40분을 강독 겸 강의를 하고 나머지 20분 동안 질문을 받는데, 언제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질문이 많았다.

고전 강독 겸 강의를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 글쓴이의 경험을 나열했다. 그동안 ‘울림’ 있는 고전 읽기를 목표로 한, ‘강독 겸 강의’라는 글읽기 방식은 도서관에서 잘 시도하지 못해 왔다. 이런 글읽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이 발랄함과 재미를 넘어 품격과 깊이를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끝으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고전 강독·강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다. 고전 원전을 읽지 않았으면서, 고전을 읽는 게 좋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사람은 없겠기 때문이다. ‘좋은 구절’을 몇 마디 암기해서 설득하는 것과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고전을 직접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설득에서 중요한 것은 ‘느낌의 감염’이고,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원전을 읽지 않고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훗날, 이 시대의 한국 문화를 도서관이 걸머지고 나아갔다는 소리가 퍼져 나오길 바란다.

이양호 | <삼국유사, 역사의 뜻을 묻다>의 저자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청소년출판협의회에서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박정해 / 이용석 / 최한나 / 강지영 / 민경일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특별한 배움의 장, 경기여자고등학교 도서관

-전보라 (경기여고 사서교사)

경기여고 도서관은 대학 수준으로 넓은 학교 부지에 독립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다른 건물과 이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1980년대부터 다행히 대대로 사서교사가 있었으며, 교장선생님들 또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100년이 넘는 학교지만 꾸준한 장서관리가 이루어졌고, 2013년 2월에는 학교 자체 예산과 구청 예산을 들여 도서관 내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낡은 컴퓨터를 폐기하고, 새 컴퓨터 16대를 들여와 도서관이 교수·학습 지원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었다.

리모델링 이전에도 경기여고 도서관의 공간과 자료는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 활용되었지만, 협력수업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든 덕분에 2014년도의 경기여고 도서관은 매달 교과연계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예약이 꽉 차 있다. 사서교사는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교과연계 도서관 협력수업은 교직원 회의 시간을 활용한 교사 연수를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고, 안내한다.

3년 전에는 사서교사가 도서관 협력수업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지만, 이제는 도서관 협력수업을 경험한 교과교사들이 전도사가 되어 같은 교과군 선생님께 전파 중이다. 수업 만족도가 높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처음 시도하셨던 선생님들은 다음 학기, 다음 해에도 도서관 협력수업을 추진하여 3년차에 접어든 교과선생님들은 도서관 협력수업의 노하우까지 생길 정도이다. 경기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은 2011년부터 교육자료센터 체제로 전환하였다. 교내의 문헌, 전자자료 뿐만 아니라 교외의 정보와도 학생들이 만날 수 있게 연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 활용하는 교과 주제별 장서는 소속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개포도서관, 남산도서관)의 단체 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5월말 경기여고 도서관의 교수·학습 공간은 '생명과학' I 도서관 협력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가득하다. 4차시에 걸쳐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2학년 8반 학생들은 지정 과제 서가에서 "생물다양성의 감소 실태"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뉴턴하이라이트 생물다양성"과 같은 다소 어려운 과학책부터 "북극곰 윈스턴을 구해줘"와 같은 그림책까지 찾아 읽으며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DBpia와 KRpia 같은 유료 DB를 연간 구독하며, 사서교사는 학술 기사의 활용 방법, 보고서 및 발표와 같은 정보 종합의 방법을 교과 수업 시간 제시한다. 수행평가까지 연계하여 실시된 이 수업은 평가 기준에 참고문헌 출처 밝히기,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활용 여부와 같은 정보활용기준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교과내용과 정보활용 기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고 있다.

생명과학 도서관 협력수업이 종료된 이후 6월부터는 2학년 중국어 선택 3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시에 걸쳐 "중국 문화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다. 남산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온 50권의 책과 DBpia의 학술 기사를 역시 읽고, 분석하며 학생들은 중국 문화 발표를 준비하여 표현했다. 교과서의 조각글을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표현하고 밝힌 중국의 역사적 사건, 분쟁, 문화 관련 글을 읽으며 학생들은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에 참여한 2학년 학생들은 도서관 수업을 해서 좋은 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좋았다", "교과교실보다 자료가 많았다", "교실과 가깝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도서관에서 협동하는 법을 배웠고 나중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료조사 방법을 알게 됐다"와 같은 점을 공통적으로 장점으로 언급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책을 읽고 내용을 소화하여 탐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보며 교과교사 또한 큰 감동을 받게 된다. 교과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수파트너로 사서교사들이 나서는 학교도서관을 앞으로도 매일 매일 꿈꿀 것이다.



중국어 도서관 협력수업을 위한 문헌 자료



생명과학 도서관 협력수업 시간 학생 발표 장면



중국어 도서관 협력수업 시간 - 사서교사가 "탐구를 위한 읽기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장면



도서관 문헌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학생들

# 우리 박물관에서 독서교실하자! (지동초등학교 독서교실-수원화성박물관과의 협력프로그램)

-염효경 (수원 지동초등학교 사서)

독서교실 프로그램. 읽고 토론하거나 아니면 읽고 만들거나 그리고 읽고 쓰거나. 학교도서관에서 일한지 어언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학교도서관에서 하는 독서교실. 어제와 다른 독서교실을 하고 싶었다. 지성이면 감천인가?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교육으로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지동초등학교와 수원화성박물관과의 학교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우리고장의 자랑이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바로 알기와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지동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25여 명의 희망자를 선발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수원화성박물관까지 20여 분을 걸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덥고 땀이 흘렀으며,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으로 손과 볼이 시렸다. 그러나 걸어가는 길목에 정조대왕 때 만들어진 역사가 있는 지동시장(사통팔달)과 수원천을 지나면서 여름에는 껍뻍되는 오리떼와 물고기떼들을 구경하면서 가고 겨울에는 여름에 보았던 그 강이 꽁꽁 얼어붙어 썰매 타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니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까지 2시간의 화성박물관에서의 독서교실! 행여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시작과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신 학부모 도서관위원들 또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감사드린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첫째날, 담당선생님(수원화성박물관 백진주)이 수원화성박물관내 전시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정조시대의 역사와 문화 및 수원화성의 축성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둘째날, 팔달문 단청 액자만들기(모사), 셋째날 와당액자 만들기, 넷째날 와당 탁본하기, 다섯째날 평면거중기 녹로만들기를 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첫째날,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회갑잔치를 열었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봉수당 진찬음식 액자 만들기, 둘째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해인사장경판전은 화성과 같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의 역사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나의 이름을 새겨보며 경판 만들어 보기, 셋째날 수원화성의 축성과정을 학습하고 수원화성 건축물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서북공심돈 만들기를 했다.

2014년 독서교실도 계속 화성박물관 협력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날 조선시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착용했었던 요즘의 주민등록증인 나만의 호패 만들기, 둘째날 박물관 내 초상화 속 인물이 입고 있

는 흉배 그려보기, 셋째날 박물관 밖으로 나가서 하는 야외 체험활동으로 정조시대의 물길인 수원천 옆의 생태 및 역사 알아보기이다.

박물관에서의 독서교실 프로그램, 수원화성박물관 체험활동을 마치며 우리 지동아이들은 수원화성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 유적에 대한 문화적 소양을 높혀

문화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방학동안 어린이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경험하면서 책임기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고장의 자랑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잘 지켜나갈 힘도 갖게 될 것이다.

날짜	활동내용	활동시간	활동사진	비고(준비물)
7월 29일 (화)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 행차' 읽기	이론 : 40분 실기 : 70분 마무리 : 10분		책 읽어오기
	조선시대 주민등록증인 나만의 호패 만들기			자신의 한자이름 및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 적어오기
7월 30일 (수)	'수원화성과 정약용' 읽기	이론 : 40분 실기 : 70분 마무리 : 10분		책 읽어오기
	초상화 속 흉배 실크스크린			없음
7월 31일 (목)	'정조의 꿈을 품은 성곽 수원 화성' 읽기	체험 : 100분 마무리 : 20분		책 읽어오기
	박물관 옆 역사 및 생태 체험			없음

날짜	활동내용	활동시간 10시~12시	활동사진	교육장소
8월 5일 (월)	'정조대왕' 읽기	이론 : 40분 실기 : 50분 마무리 : 10분		수원화성박물관
	박물관 가이드북 만들기			
8월 6일 (화)	'정조대왕' 읽기	이론 : 40분 활동지활동 : 40분 마무리 : 10분		
	팔달문 단청 액자 만들기(모사)			
8월 7일 (수)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 행차' 읽기	이론 : 30분 실기 : 80분 마무리 : 10분		
	와당액자 만들기			
8월 8일 (목)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 행차' 읽기	이론 : 20분 실기 : 30분 활동지활동 : 10분 마무리 : 10분		
	와당 탁본하기			
8월 9일 (금)	•정조대왕의 관련자료 탐색해 보기	이론 : 30분 실기 : 60분 마무리 : 10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혜경궁홍씨 가마 만들기 •평면거중기 녹로만들기 - 활동지 작성			

	월	화	수	목	금
여름독서교실					
겨울독서교실					

# 청소년출판협의회에서 권하는 책

청소년출판협의회(<http://cafe.daum.net/1318pub>)

청소년출판협의회(청출협)는 청소년들이 읽을 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의 공동체입니다. 청출협은 청소년들이 책에 대한 자기 선택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소통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엄마 안녕

마크 드레이니 글 / 최정윤 옮김 / 동산사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픔보다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상실감을 넘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엄마를 잃은 10대 소녀가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 '엄마를 위한 노래'를 작곡하려 한다. 어느 날 소녀는 엄마의 앨범을 발견하고, 거기서 젊은 날의 엄마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비틀즈와 존 레논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상실의 기록. -이루리



## 왕가리 마타이

윤해운 글 / 나무처럼

2004년 노벨평화상을 탄 '나무 심는 여인' 왕가리 마타이의 전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출신 왕가리 마타이는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케냐 땅에 4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초록 물결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마타이는 환경을 보전 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13년 한국 출판문화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도서로 뽑힌 책입니다. -권혁정



## 용기가 말을 건넌 때

안느리즈 에르티에 글 / 정미애 옮김 / 다림

1957년 미국, 백인만 다닐 수 있었던 학교에 아홉 명의 흑인 학생이 진학합니다. 이들은 온갖 멸시와 경멸을 견디고 끝내 졸업장을 얻어냅니다. 이들이 겪은 1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권의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열여섯 살, 피부색만 다를 뿐인 두 소녀가 사회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편견을 무너뜨리며 우정을 나누는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소라



## 한달 간의 사랑

전아리 글 / 도서출판 다름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니? 사랑은 인간을 새로운 세계와 이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 때문에 서로를 위태한 벼랑 끝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열일곱 살 재경은 머무른 같은 눈에 긴 생머리의 은하를 만나 자신의 이상형이라 철석같이 믿지만, 곧 은하와 은하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자신이 상상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에 빠진다. 재경은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과 내면에 대한 무관심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다. -윤민혜



## 폭탄머리 아저씨와 이상한 약국

강이경 글 / 김주경 그림 / 도토리숲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세상 속으로 한 발 나아가는 어린이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마법 동화. 저학년 동화 《폭탄머리 아저씨와 이상한 약국》은 어린 친구들이 여러 이유로 생기는 상실감과 두려움,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이상한 약국의 폭탄머리 아저씨를 보내 줌으로써 아이의 불안감을 메워 주고, 모두와 화해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한 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장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병재



## 하루 10분 독서의 힘

임원화 글 / 미다스북스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체계화시킨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중반에 겪었던 혼란과 슬픔, 무기력 등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독서법을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하루 10분 몰입 독서'다. 하루 10분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다. 저자는 아침과 밤, 또는 하루 중의 틈새시간을 이용해 완전 몰입 형태의 독서를 지속할 때 나타나는 삶의 긍정적 결과들을 자신의 경험을 풀어써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두호



## 얼음봉대 스타킹

김하은 글 / 바람의아이들

존재 자체를 흔드는 폭력을 겪는 선혜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아파하는 10대들의 삶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선혜와 입시에 매달려 있는 학교 아이들, 고시원 취업준비생들은 같은 듯 다르게, 온 힘을 다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불시에 닥친 한여름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열일곱 살에게 보내는 찬사이자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이다. -이민영



## 비단길

장정욱 글 / 북멘토

조선 후기, 누에치기 소년 수리가 명문가 양반 '선암 정약중'을 만났습니다. 거들먹대는 양반과의 대화라니 기대도 안 했지만 왜일까요, 선암과 대화할 수록 수리의 마음도 부쩍 커 갑니다. 비정한 시대에 아버지를 빼앗기고 그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 분투하는 수리의 성장담이자, 진짜 멘토란 어떤 사람인지 질문해 온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소설. -진원지



## 공공미술, 마을이 미술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엮음 / 소동

미술이 마을을 바꾸고 있다. 밋밋하던 동네의 골목이 아이들의 꿈이 담겨있는 벽화와 조형물들로 꾸며진다. 면 어떻게 될까? 5년 전 부산의 감천 마을은 대표적 빈민마을이었지만 미술이 마을을 변화시키며 청소년들이 즐겨워하는 마을로 변모했다. 한 해 동안 수십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졌다. 현재 전국 69개의 마을이 이야기와 꿈을 담아 변화했고, 매년 더 많은 마을이 새로워지고 있다. -남규조



## 페렐만이 들려주는 생활 속 과학 이야기

야콥 페렐만 글 / 이재필 옮김 / 씨네스트

세계에 교양과학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하는데 가장 혁혁한 역할을 한 야콥 페렐만의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빗방울은 맞아도 왜 아프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든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즉 중력의 힘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는 빗방울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거리에 의해 엄청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빗방울은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고 힘도 세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책은 왜 빗방울을 머리에 맞아도 아프지 않은 지와 같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야기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것입니다. -서정원



## 왜 석유가 문제일까?

제임스 랙스 글 / 유윤환 옮김 / 반니

수없이 사용하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석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는 책. 석유가 언제, 어디서 개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거대 기업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가다 보면 석유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석유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10대들에게 꼭 필요한 책. -권경미



## 아빠, 나를 내버려 둬

브리짓 스마자 글 / 양진성 옮김 / 크레용하우스

나오미는 갑작스런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 합니다. 단 둘이 지내는 나오미에게 미안한 아빠는 나오미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딸과의 추억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타인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우는 일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솔직한 모습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임을 이 책을 통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

# 내가 권하는 책



**루빈스타인은 참 예뻐요**  
 펴프 몬세라트 글·그림  
 북극곰 / 2014년 4월 / 44쪽

루빈스타인은 혼자다. 눈도, 코도, 손도, 발도 다 예쁜 여자, 발리우스 서커스 단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쉬는 날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여자,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참 모습은 모르는 여자, 수염 난 여자 루빈스타인. 수염 난 아름다운 여자 루빈스타인이 코끼리 코 멧쟁이 파블로프를 만난다. 둘은 서로 한눈에 가슴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사랑에 빠진다. 예쁜이와 멧쟁이의 만남. 그러나 세상은 수염 난 여자와 코끼리 남자만 볼뿐이다. 이 책은,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둘이 마주볼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덕담을 하고 있지만, 책을 덮으면 애뜻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저리다. 사랑 뒤에도 책 밖에서도 두 사람은 행복할까? 좀 달라도 나만의 매력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는 현실은 저승이다.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이 서커스 단원인 이유일까? 사랑은 둘만 하고, 아무도 모른다. 가슴 시리고 저런 예쁜이와 멧쟁이의 사랑 그림책.

-이종훈(동산사)



**관습과 통념을 뒤흔든 50인의 과학 멘토**  
 피트 무어 글 / 이명진 옮김  
 책숲 / 2014년 4월 / 139쪽

과학이 이룬 진보는 위대하다. 하지만 그 진보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첫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얼마나 많은 피가 심장에 모여 있을까? 사람 몸속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할까?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부모인데 왜 자식들의 얼굴 생김새가 똑같지 않지? 어떤 힘이 머리카락을 가닥 가닥 위로 서게 하는 걸까?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세포 안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등 50인의 과학자들이 품었던 사소하고도 우연한 생각들과 그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론으로까지 확장되었는지 흥미롭게 알려주는 책이다. 더불어 해부학, 질병 유발 인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핵 과학 등 과학계의 주요 이슈들을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어 읽어보는 것만으로 과학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까다로운 과학 방학 숙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배수원(반니)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  
 권은중 글 / 심상윤 그림  
 철수와영희 / 2014년 4월 / 248쪽

한 끼 식사에 담긴 인류사.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면!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 이 책은 라면을 요리로 생각한다. 그냥 매끼를 때우는 음식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리, 즉 인류의 무한 경험이 녹아 있는 결정체로 바라본다. 다시 질문,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책은 말한다. 불, 손, 물, 식물, 고기, 국수……. 이게 좀 다른 지점이다. 지구와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온 역사의 시간으로 요리를 국한 짓지 않는다는 말씀. 설탕을 소개한 글에 보면, 희고 달콤한 설탕에 신세계와 흑인에 대한 폭력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설탕을 써서 달달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 좀 껄끄러울 것이다. 책은 즉각적으로다가 '설탕 없이 요리하는 법'을 소개한다. 요리와 역사를 동감하면서 읽는 맛이랄까? 저자 왈, '지식을 먹어 삼키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책은 필히, 각 장마다 소개하고 있는 짤막한 요리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 봐야 한다. 그래야 세계사 나아가 인류사의 각 장면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소화기관으로 폭풍 흡입될 것이다. 만들어 보고 싶은 요리가 꽤 된다.

- 홍석근(평사리)





각권 11,000원 | 세트 22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일과 사람」 시리즈 일과 사람 어린이 인문교양 그림책

### 이웃이 하는 일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일하는 사람들을 취재하여 만든 어린이 직업 책 「일과 사람」 시리즈. 일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을 통해 무얼 얻을까요? 「일과 사람」 시리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경기도문화재단 우수교양도서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권장도서
-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 「애들아, 학교 가져!」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사계절 (주)사계절출판사 413-120 경기도 파주시 화동길 252

전화: (031)955-8588 팩스: (031)955-8595 트위터: @sakyejul 페이스북: fb://sakyejul 홈페이지: www.sakyejul.co.kr 독자카페: cafe.naver.com/sakyejul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 새로이 시작되는 책과 사람과의 만남

- 독서교육 담당교사의 새 학교 적응기

박정해(양동중학교 국어교사)

공립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기게 된다. 독서가 교육과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새 학교의 도서관과 사서가 어떤 모습일지가 제일 궁금하다. 이번에 새로 옮긴 학교는 도서관이 제법 규모도 있고, 장서 수도 꽤 많을 뿐더러 새로 온 사서도 친절하고 열정적이다. 빙고! 게다가 이 학교에서 나는 독서교육계 업무를 맡았다.(작은 학교의 경우 독서교육계가 없기도 하다.)

지난 해 독서교육이 미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없는 점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괜찮은 책들이 많지 않은 점, 37개 학급 중에서 4개 학급 수업만 하게 되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관련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긴 하다. 그렇지만 원래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서운동을 펼쳐왔으니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제일 먼저 도서관에 괜찮은 책을 많이 비치해 두는 일에 신경을 썼다. 좋은 책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크니까. 국어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수행평가 계획을 세울 때 독서활동 평가를 하기 좋은 책 목록을 제안했다. 학년 당 15권의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고 한 학년을 맡은 세 명의 국어선생님이 돌아가며 학기당 5권씩을 아이들에게 읽혀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다른 국어선생님들께서 선뜻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주셔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협조로 해당 책을 10권씩 사서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 이후 책 읽기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아이들 책을 읽으면서 새로이 독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선생님들을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 학생 단위에서 시작해서 점차 교사와 학부모 단위까지 함께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를 여러 개 조직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책을 사고, 독서동아리 활동 때 소소한 간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독서동아리는 함께 책을 읽고 싶은 친구들과의 활동 요일을 정해 동아리를 구성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독서동아리 연간 활동계획을 세우고 독서동아리 첫 활동을 하는 것을 지도해 주었다. 그 이후에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고 간식을 주는 일만 하면 된다. 아직은 전체 인원의 10% 정도만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알차게 꾸리고 이들의 활동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요즘에는 학습과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

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어 그림책부터 읽고 있다. 가을에는 문학기행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연말에는 독서동아리 활동 발표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내년에는 독서토론회를 열어 볼까? 내 머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 책과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은 장소가 바뀌어도 늘 재미 있고 보람차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계

## 즐릴 땐 지도책을 본다

이용석(현실문화연구 편집부)

수업 시간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선생님도 학생도 각자 일을 할 뿐이었다. 몇몇은 앞드려 자기도 하고, 더러는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짝과 함께 모눈종이에 오목을 두기도 했다. 국영수를 비롯해 수능에 나오는 과목 선생님들은 정규 수업시간에도 수능 문제집만 풀어냈고, 그 밖의 과목은 내내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어느 누구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심하지만 앓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루하면서도 숨 막히는 공기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할 생각만으로 버티기엔 수업 시간은 너무 길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 다른 책을 보다가 몇 번 걸리긴 했지만 크게 혼란 적은 없었다. 수능 준비를 위한 독서라고 둘러댔긴 했는데, 조잡한 핑계가 먹혔다기보다는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두었던 거 같다. 주로 본 것은 소설책이었는데, 놀랍게도 교과서 두 권을 책이 해지도 록 봤다. 바로 역사부도와 지리부도였다.

내 책상 밑에는 늘 그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책에 나온 지도들, 지도에 빼곡히 담긴 정보들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수업 시간 50분이 끝나곤 했다.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고, 지도를 보면서 세계 곳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좋았다. 평생을 살면서 가볼 일이 없을 것만 같은 낯선 나라의 수도부터, 대륙을 가르는 거대한 강과 호수의 이름을 달달 외웠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안도라'라는 조그만 도시국가도 있는 것도 알았고, 남한이 일본, 영국, 프랑스들과 비교해 아주 좁은 땅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일본과는 비슷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임도 지도가 들어가는 게임을 좋아했다. '삼국지' 시리즈나 '대항해시대'는 한 번 시작하면 부모님께 한 소리 들을 때까지 멈추지 못했다. '삼국지' 오락에서 보던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지도가, '대항해시대'에서 내가 그랬던 세계지도와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역사부도와 지리부도에서 찾아냈다. 지도는 해안선과 등고선을 보여주는 '지리'이면서, 한

반도 국가들의 국경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역사'였고, 냉전 이후 세계의 세력 분포를 보여주는 '국제정치'였다. 구글맵스 만큼 디테일하고 정교하지는 않지만, 구글맵스에는 담겨있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들을 나는 사랑했다. 『라루스 지도로 읽는 세계』를 집어 들었을 때, 나는 지루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유일한 해방구였던 지도책들이 떠올랐다. 요새는 인포그래픽이 발달해서인지,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와 정보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기호들이 지도 안에 가득하다. 나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 봤던 역사부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옆에 놓고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지도 만드는 기술이 일취월장한 거 같다. 그때, 50명이 한 교실에서 조그마한 선풍기 두 대로 여름을 나던 시절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시절 수업 시간이 좀 더 재미있었을까? 모르겠다. 확실한 건, 나는 지금도 지도책을 사랑하며, 『라루스 지도로 읽는 세계』를 읽다보면 업무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것. 그리하여 점심 먹고 졸릴 때, 나는 『라루스 지도로 읽는 세계』를 꺼내든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

최한나(서울 반포고등학교 2학년)

중고교사가 끝난 5월초 모처럼만에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일산에 사는 친척집을 가게 되었다. 연휴가 시작되어서인지 전철 안에는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일산까지는 한 시간 이상이 걸려 타자마자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 잠이 깼다. 일본인 가족이 우리나라를 여행 왔는지 지도와 가이드 책자를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철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든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젊은 학생이나 어린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정도 지나자 전철에는 사람들이 빠져 나갔고 맞은편에는 일본인 가족이 앉아 있었다. 조용히 앉아 온 가족이 책을 읽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만 보다가 책 읽는 온 가족을 보니 먼 지구 밖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전철에서 내릴 때 까지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이로운움을 주었지만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빼앗아 가 버렸다. 이러한 기계의 발달은 구지 책을 안 읽어도 요약된 글과 생각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획일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어떤 사람

은 책보다 더 많은 지식을 빨리 알 수 있다고 점차 책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러한 편리함보다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어져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힘을 잃게 되어 메마른 세상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은 시간을 보내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닌 미래의 올바른 생각과 창의력이 쌓아지고 스스로의 올바른 힘이 되어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책 읽는 젊은 일본인 가족을 통해 우리의 책 읽는 습관과 모습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아이부터 책 읽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광고처럼 우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어 울음을 푼 그치게 하는 모습은 점차 기계에 의존하게 되며 생각을 잃게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책을 읽는다면 이 작은 모습이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의 힘은 보이지 않은 어떠한 무기나 유명한 정치가의 말보다 힘이 있다고 믿는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학교도서관, 지금은 사람에게 투자할 시기이다**  
 강지영(서울 강명중학교 사서)

2002년 경기에서 학교도서관과 첫 인연을 맺었다. 쾌적한 환경,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서가, 10여대의 컴퓨터와 사서업무공간이 마련된 초등학교 도서관. 그 외형에 한 눈에 반해버렸다. 전문 사서로서 마을도서관에서 경험한 다양한 독서활동과 그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학교도서관에 풀어 놓는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도서관을 찾을 것이고, “책 읽어라!”는 잔소리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설레이는 맘으로 출근한 첫 날. 80여 명의 어머니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대출·반납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새 책과 헌 책.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책을 골라서 읽었을까? 학교 시간. 봉사자 어머니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 몰려와 학교 가방과 학원 가방을 바꿔 가느라 도서관은 한바탕 시끌벅적. 내가 본 학교도서관은 그저 대출·반납만 하는 깨끗하고 예쁜 창고였다.

어머님들과의 소통! ‘1인 사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 하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서관을 활기차게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인정하고 어머니들과 함께 도서관의 역할, 자원봉사의 의미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서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교과서 분석 후 교과연계관장도서를 선정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책과 연계한 연극활동, 요리활동 등 독서 이벤트 행사로 독서흥미를 유발시켰으며, 고궁 및 고구려고분벽화전 등 견학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서관자로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독서골든벨 행사는 정독하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으로, 월별 독서행사, 원화전시, 새책 전시, 방학캠프 등은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 하는데 손색이 없는 활동이었다.

학부모서비스로 진행된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학부모 독서교육강좌는 만족도가 큰 행사였다. 대출·반납만 이루어졌던 예쁜 학교도서관 창고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재능있는 학부모님이 어머니 독서회를 맡아서 진행하시겠다고 나섰다. 단순 대출·반납이 아닌 학부모의 질 높은 재능기부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도서관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은 전문사서와 학부모 노력에 부응하듯 늘 웃는 얼굴로 도서관을 찾았고,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터가 되었다. 방학이 되면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의 피서지가 되었고, 사서는 신이 나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아이들의 발걸음을 도서관으로 이끌었다. 사서의 열정과 아이들의 독서 호기심,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묵묵히 협조해 주신 어머님들 덕분에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된 것이다.

당시 ‘일용잡급직’이라는 직종으로 폄하된 학교도서관 사서는 일당 22,610원. 아르바이트 수준의 월급이었다. 동병상련인 사서선생님들과 만나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평가하고 다시 실천에 옮기면서 10년 세월이 흘렀다.

2011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전문 사서를 배치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급여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은 컸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중학교 사서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열이라면 한 가닥 한다는 지역의 모 중학교도서관은 10년 전 초등학교 도서관 수준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그저 문만 열어놓고 열람실 역할만 하고 있는 중학교 도서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장서들, 불필요한 물건들을 총집합시켜놓은 도서관. “참! 난 일복도 많지.” 경기도에서와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도서관 환경을 꾸미고, 서가를 정리하고, 틈틈이 독서이벤트를 진행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했지만 불완전한 정책 탓인가? 인식 부족 탓인가? 서울에서 첫 중학교와의 인연은 아쉽게도 10개월만에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개교 학교인 강명중학교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째다. 2%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는 강명중학교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 부족한 나는 2% 부족한 강명도서관을 만들었다. 부족한 2%는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꿈꾼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교도서관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행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준 서울시 교육청에도 감사하다. 그러나...2%+2%=4%.

아쉬움의 4%는 불완전한 정책을 만든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인 중학교 사서. ‘사서 보조’인 초등학교 사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비정규직인 다양한 회계직군, 나의 부족한 2%는 능력을 유지하려고 기다리다 지쳐서 퇴보한 2%. 우리는 사춘기 중학생들과 똑같이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밖으로 다 뛰쳐나가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자’라는 이름으로, ‘보조’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 학교 비정규직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일

한다는 면에서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왕따, 학교폭력 등으로 방황하는 아이들,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모두 품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투자할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믿고 기다리려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를, 서울시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도서관 나무**  
 민경일(월계문화정보도서관 자원활동가)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을 목요일 오전 시간에 유아열람실을 둘러보면, 곳곳에 놓여 있는 서가는 나무줄기로 보이고 그곳에 꽂혀 있는 책들은 꽃과 잎사귀로 보인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책은 꽃이고, 파란색과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책은 잎사귀고, 그 책들을 집어 드는 아이들은 나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서관은 커다란 나무이다. 나무줄기가 1층, 2층, 3층으로 마구 뻗어 나간 커다란 나무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나무의 줄기마다 형형색색의 책들이 달려 있고, 여러 사람이 그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끔가다 가지치기도 해준다. 나 자신도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인연을 맺고 자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도 도서관 나무에 물을 조금씩 주고 있는 셈이다.

예로부터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나무에 마음을 기대고 의지를 해왔다. 신령한 나무라고도 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고도 하고, 심지어 임금을 알아보는 나무 이야기도 만들었다. 그런 신령스러운 나무는 아니지만, 책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도서관 나무에 마음을 기대어 보는 것은 어떨까?

커다란 나무에 온갖 곤충과 새들이 의지하고 있듯이, 도서관 나무에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있다. 매점에는 쥘면과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고, 유아실에는 울긋불긋한 그림책을 찾는 아가들도 있고, 무언가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도 있고, 언제나 서가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도 있다.

주머니 속에 큰돈이 없어도, 같이 속닥거릴 그 누군가가 없어도, 도서관은 항상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찾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긴 가지를 늘어뜨리고 책들을 팔랑거리며 잠시 쉬었다 가라고, 그리 오래 붙잡지 않을 거라며 속삭여 준다. 그렇게 동네의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도서관 나무는 우리들의 마음을 티 나지 않게 어루만져 주고 있다.

“도서관 나무야, 나는 네가 참 좋아. 네가 없다면 정말 쓸쓸하고 황량할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 좋은 친구 하자, 알았지?”

“응, 알았어.”

## 학도넷 소식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4년 3월 15일 소식지 봄호 발행(총권 31호)
- 2014년 5월 18일 책모임 공모 선정모임 발표
- 2014년 5월 24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 2014년 5월 31일 워크숍 '일과 사람, 따뜻한 우리 이웃을 찾아 번개신문 만들기'

### 신입회원 (2014년 3월~2014년 5월)

- 정회원 : 이수주 박종희  
 준회원 : 장인경 오영순 연선예  
 웹회원 : 전남주 최춘희 김경민 임희경 이미금 서은주 박진묵 김수정 박정숙 이종림 윤은정

### 회비 및 후원내역 (2014년 3월~2014년 5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윤 김은영 선보배 이수연 구미숙 허지은 임행녀 김미숙 조선희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혜영 신정화 정해선 윤남미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성주영 김대경 유정원 차진미 김하나 이유정 이찬미 김선영 채재현 권도경 최선옥 이현 김경숙(보령)
  - 매월 1만원 :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중성 조의래 조은영 김경숙 박영옥 김승훈 이경자 문예원글로피아 백화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수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향미 박정해 강지영 박지연 류주형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조길량 김광재 조선희 황봉희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 정회원 연회비 : 민복례(5만)

### 준회원 회비

- 매월 : 장한솔(2천) 장버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권형(1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이재희(2천) 최유미(3천)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 광고후원 : 고래가숨쉬는도서관(50만)

후원 : 학교도서관저널(20만), 청소년출판협의회(10만), 이효립(10만), 조원희(1만)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경성을 쓰다, 수상한 아파트, 비단길(북멘토)/ 물속으로 침범! 조금 다르면 어때? 우리 마을에 놀러오세요, 콩이네 유치원 텃밭(웃는돌고래)/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미술 놀이, 한담 한담 손끝놀이 어린이 손바느질/ 배운다는 건 뭘까?(미세기)/ 르완다에 평화의 씨앗을(공교)/ 관습과 통념을 뒤흔든 50인의 과학 멘토, 질병과 죽음에 맞선 50인의 의학 멘토(책숲)/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 10대와 통하는 사찰 벽화 이야기, 파브르에게 배우는 식물 이야기(철수와영희)/ 과학이 빛나는 밤에, 당신이 최고의 교사입니다(추수밭)/ 더 원더풀 오, 제이크의 뼈 박물관(찰리북)/ 100억 명 어느 날, 빨간 지붕의 나라, 광인 수술 보고서(시공사)/ 뱀파이어 소녀 반다, 그림자 너머(글로연)/ 크리스마스의 기적(동산사)/ 처음 손바느질, 우리가 아는 새들 우리가 모르는 새들(겨리)

###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도서관이야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책8(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손안에서 공모전 포스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다(경민대학교 독서스페셜 리스트 교육원)/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터(대한출판문화협회)/ 가교(한국NGO학회)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학도넷 사례공모 선정학교 발표했습니다.

함께 누리는 즐거움 학도넷 '학교 속 책 이야기' 공모에 귀한 사례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리상 : 서울 국사봉중학교 독서수업연구동아리 활동사례  
 독서수업연구모임으로 행복한 교실, 도서관을 만든 사례
- 하늘상 : 경기 오금초등학교 독서교육 단위학교 교사연수 사례  
 단위학교 '독서·도서관 관련 연수'를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사례
- 바다상 : 충남 기지초등학교 교사책모임 '가온길 북멘토' 활동 사례  
 서울 반포중학교 교사책모임 '오거서' 활동사례  
 학교에서 하는 '교사 책모임'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례

★선정학교에 준 도서는 학교도서관저널과 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 학도넷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했습니다.

·주제 :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운영주체 바라보기

시 간		내 용
1:00~1:30	여는 마당	작은 책공연(나무 이효립의 세월호 영혼을 위한 진혼제) (사회 : 정진수 공동대표)
1:30~2:10	주제발표1	관리자 및 교원의 독서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구교육청 교원 직무연수이야기 (한원경/경북대 사범대부설 중학교장)
2:10~2:50	주제발표2	교대 및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에 독서교육과정론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야기 (이순영/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2:50~3:00		휴식
3:00~3:30	주제발표3	서울 국사봉중학교 독서수업연구모임으로 행복한 교실, 도서관을 만든 사례
3:30~4:00	주제발표4	경기 오금초등학교 단위학교 독서관련 교사연수 사례
4:00~4:30		질의 및 전체토론
4:30~5:30		2014 사례공모 선정모임 시상식 학도넷 정기총회

- 때 :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일과 사람, 따뜻한 우리 이웃을 찾아 번개신문 만들기 했습니다.

·주제 : '일과 사람, 우리이웃 따뜻하게 들여다보기'

시 간	강 사	내 용
1:00~2:00	강승숙	일과 사람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이웃을 만나봐요. 일, 사람, 이웃 공동체 관련 인터뷰&취재 활동 관련 사례발표(취재 수업활동 사례)
2:00~3:00	김병기	신문만들기 기획회의와 취재와 기사쓰기, 편집 알아보기

2:50~3:00	사람책	휴먼라이브러리(8명) 사람책 만나기
4:30~6:00	김경숙	모듬별 기사쓰기, 신문만들기/ 모듬별

- 강사 : 강승숙 선생님(인천 부광초등학교 교사), 김병기 선생님(오마이뉴스 본부장, 전 편집국장), 따뜻한 우리이웃 사람책(8분) 교사(강승숙), 기자(김병기), 조각보바느질 장인(김봉화), 배움터발정원학교 강낭콩샘(김심환), 지역서점 대전계룡문고대표(이동선), 사서(서울도서관장(이용훈), 우리자리공부방지기(이현희), 동화작가(이혜란)
- 때 : 2014년 5월 31일(토) 오후 1시~오후 6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저널
- 후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계절출판사

### 학도넷 만남과 바람 '서촌기행' 합니다.

- 이꿈이 : 김정숙 선생님(전동중학교 국어교사)
- 가는 날 :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 모이는 곳 : 경복궁역 3번출구
- 참가비 : 2만원 (점심, 간식, 강사로 등)
- 준비물 : 편한 신발, 모자, 물
- 읽어보기 : 운영절(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사랑) 조현설 글/휴머니스트  
 서촌방향(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 최고고의 동네) 설재우 글/이덴슬리벨

###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합니다.

·주제 : 그림책에 관한 모든 것

시간	10~13시	13~14시	14~17시
첫째 날 (8월 12일)	그림책의 역사 이루리(동화작가, 그림책, 평론가, 북극곰 편집장)	점심	그림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은파(전 한겨레그림책학교 강사, 고래뱃속(아지북스)편집장)
둘째 날 (8월 13일)	그림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소희(동화작가, 책읽는엄마 책임은아이도서관 관장)	점심	그림책과 놀이수업 오승주(책 놀이 저자)
셋째 날 (8월 14일)	그림책 작가가 되는 길 이경국(그림책 작가, 한겨레그림책학교강사)	점심	그림책 고르기 이루리(동화작가, 그림책 평론가, 북극곰 편집장)

- 강사 : 이루리(동화작가, 그림책 평론가, 북극곰 편집장), 이은파(전 한겨레그림책학교 강사, 고래뱃속(아지북스) 편집장), 김소희(동화작가, 책읽는엄마책임은아이도서관 관장), 오승주(책 놀이 저자), 이경국(그림책 작가, 한겨레그림책학교 강사)
- 때 : 2014년 8월 12일(화)~14일(목) (3일간, 10:00~17:00)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2호선 강남역)
-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참가비 : 9만원 / 학도넷 정회비를 내는 회원 8만원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